

한전, 고졸 채용 3~4배 늘린다

3년간 200명 채용...대졸 입사자와 동일한 직급·직무 부여 '고졸 체험형 인턴' 제도 도입...취업 역량 강화·일 경험 제공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 계약학과' 신설·자격증 취득도 지원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청년들의 채용을 확대하고, 경력개발 지원에 나선다. 고졸 채용 확대와 고졸 인재들의 경력 개발 지원을 통해 학력 중심 채용 방식에서 탈피하고, 능력 중심의 청년 자립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졸 학력자에게도 대졸 학력자와 마찬가지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2일 한전에 따르면 오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고졸자 채용 비중을 기존(2022~2024년) 대비 3~4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200여개의 고졸 학력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전은 학력 위주 채용 및 차별 방지를 위해 고졸 입사자들에게 대졸 입사자와 동일한 직급·직무를 부여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고졸 체험형 인턴' 제도를 신규 도입해 고졸 인재들을 대상으로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해왔다. 또 우수 인턴을 대상으로는 향후 진행되는 공채 필기전형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한전은 고졸 채용 확대 뿐만 아니라, 이들이 업무 관련 전문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전은 이를 위해 공기업 최초로 산학협력을 통한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 계약학과'를 신설해 고졸자들이 입사 후에도 업무와 함께 공부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학사 취득 뿐만 아니라, 업무 현장에서 필요한 산업기사·전기기사 등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도 적극 지원한다. 또 사내 직원 연수원인 한전 인재개발원에서는 ▲고졸사원 직무특화 과정 및 맞춤형 직무교육 제공 ▲찾아가는 현장교육 진행 ▲선임과의 멘토링 등 고졸 신입사원 심리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한전은 고졸 채용 확대 방침 및 고졸 인재들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지난달 26일 '고졸사원 오찬 간담회'를 개최해, 고졸 재직자들의 역량 개발 지원책을 소개했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김동철 한전 사장이 에너지마이스터고인 서울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를 방문했다. 김 사장은 전력업계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 및 고졸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한전의 고졸인재 채용확대 및 육성방향을 소개하고, 실질적인 역량개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 및 학교 방문을 통해 김 사장은 "최근 전력 등 에너지산업 업계가 기술 발전 등에 따라 급변하고 있다"며 "학력보다는 전문 분야에 대한 최신 정보와 실력을 갖춰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계자는 "이번 고졸 인재 종합지원 대책이 교육 시스템 혁신과 더불어 청년의 이른 취업, 경제적 조기자립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자립도가 높아짐에 따라 최근 가장 큰 사회문제로 거론되는 혼인율과 출산율 증가, 나아가 인구소멸 방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효성첨단소재 '차이나 컴포지트 엑스포' 참가

자동차휠·스포츠용품 등 공개

HS효성그룹 계열사 효성첨단소재가 오는 4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차이나 컴포지트 엑스포'에 참가한다. <사진> 효성첨단소재는 이번 엑스포에서 탄소섬유 브랜딩 '탄섬(TANSOME®)'로 만든 수소차용 고압용기, 자동차휠, 스포츠용품, 자전거프레임, 라켓 등을 선보이고, 바이어 미팅을 진행한다. 차이나 컴포지트 엑스포는 아시아 최대 국제 복합재료 산업박람회로, 복합재료 분야 최고 수준의 박람회로 꼽힌다. 효성첨단소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가해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조용수 효성첨단소재 대표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탄섬'의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널리 알리고, 탄소섬유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해 글로벌 고객들을 적극 공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탄소섬유는 철에 비해 무게는 4분의 1이지만 강도는 10배 이상 강한 섬유다. 자동차, 에너지, 레저 분야 등 다방면의 미래 첨단 소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세계 탄소섬유 수요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효성첨단소재는 2011년 독자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고강도 탄소섬유 '탄섬'을 개발해 2013년부터 전주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철보다 강도가 14배 이상 높은 'H3065(T-1000급)'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에 성공하며 항공, 우주분야까지 진출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농기계·시설자재로 베트남 공략나선다



농어촌공사 시장개척단 파견 수출상담회서 14건 계약 체결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시장개척단을 베트남에 파견해 한국 농기자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에 성과를 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달 26~31일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 15개사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베트남에 파견했다. <사진>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은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시설자재,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 등 농기자재 8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산업 수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장개척단이 참여한 수출상담회에서는 베트남 현지에서 유망한 구매업체 30개사가 참여했으며,

104건의 1대 1 상담을 진행해 730만달러 규모의 업무협약 14건을 체결했다. 또 시장개척단은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와 면담을 진행해 현지 농업 정책 및 인증 절차를 파악하고, 농기계·시설자재 시장 환경 세미나, 기업 방문 및 상담, 현지 유통시장 분석 등의 활동을 펼쳤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시장개척단 활동이 국내 농기자재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10월 31일 대구에서 개최되는 '농기계·시설자재 수출상담회'와 11월 독일, 베트남,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국제 농업 박람회'에도 참여해 국내 농기자재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추석 명절 일일물가 조사

통계청, 13일까지 35개 품목

통계청이 오는 13일까지 '추석 명절 일일물가 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추석(9월 17일)을 앞두고 정부의 추석 물가 안정대책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농수축산물에서 추석 성수품과 석유류·외식(삼겹살, 치킨 등 4개) 등 총 35개 주요 품목의 일일물가를 전국 7개 특·광역시에서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현장 방문 및 온라인 방식으로 이뤄지며, 조사 결과는 매일 관계부처에 제공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및 관련 물가정책 추진에 기초가 되는 가격동향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형일 통계청장은 지난달 30일 일일물가 조사 실시에 앞서 대전시 신도시장을 찾아 배추와 무, 사과 등을 비롯한 추석 성수품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81.00 (+6.69)
↑ 코스닥	769.21 (+1.55)
↑ 금리 (국고채 3년)	2.989 (+0.036)
↑ 환율 (USD)	1337.05 (+1.05)

소상공인, 매출 낮을수록 '위라벨' 꿈도 못꿔

중기중앙회, 일과 생활 균형 실태조사 소상공인 하루 평균 8.4시간 근무

매출 1억원 미만이고 직원이 없거나 적은 영세 소상공인은 노동강도가 높고 '위라벨'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0점을 제출한 사업자는 전체의 9%였는데, 1억원 미만의 사업자가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1억원 미만의 사업자의 위라벨 평균 점수는 5.7점으로 1억~5억원 미만(5.72점), 5억~10억원 미만(6.09점), 10억원 이상의 사업자(6.15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매출 1억원 미만의 사장님들의 노동강도는 가장 높은수준을 기록했다. 1억원 미만 사업자의 노동강도는 6.18점이었는데, 가장 높은 점수인 10점을

제출한 사업자가 15.3%나 됐다. 10억원 이상 사업자 중 노동강도 10점을 준 비율(5.4%)에 비하면 약 3배 수준이다.

매출 뿐만 아니라 종사자 적을수록 노동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종사자가 1~2명인 사업장의 경우 평균 노동강도는 6.04점으로 3~4명(5.82점), 5명이상(5.86점)에 견줘 비교적 높았다.

소상공인이 삶의 행복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건강과 안전'(55.6%)이었고, '재정적 안정감'(29.3%), '가족관계'(10.0%)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 소상공인은 하루 평균 8.4시간을 일하고 개인생활에는 2.8시간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하루 평균 7.4시간 일하고 3.6시간 개인생활을 갖기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4년 추석 연휴 영업 휴무 계획에 대해서는 94.7%가 설 계획을 갖고 있으며, 추석 당일인 9월17일 쉬는 소상공인은 92.1%, 9월18일 88.9%, 9월16일 86.3% 순이었다.

추석 연휴기간 5일을 쉬는 소상공인이 69.7%로 가장 많았으며, 4일(9.2%), 2일(7.9%), 1일(7.7%), 3일(5.5%)이 뒤를 이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D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